

윤 대통령 “스타트업,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뀌어야”

전략회의 주제... “세계시장 차지 의지 가져야, 힘 보태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글로벌 허브 조성 등 전략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 나가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 등 해외 순방 중 방문했던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은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당부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 “딥테크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중심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민간 벤처투자 촉진,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해외 벤처캐피털 투자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팀스’를 신설하고, 해외에 진출한 벤처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진출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선, 인바운드 창업과 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신설, 업계 관계자들의 교류 장구인 ‘스페이스 K’ 구축도 제시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오염수’ 명칭, 오염 처리수가 맞아”

한총리 “용어 변경 검토”

김기현 “오염수 처리 후 배출”

수협중앙회장은 “처리수로 사용”

여권이 3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실제로 배출되는 것이 오염수를 처리한 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취재진에게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오염 처리수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쓸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 차원에서 오염 처리수로 할지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오염 처리수를 명칭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수협·급식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칭은) 오염 처리수가 맞다”며 “위원장인 내가 썼으니까 이미 우리는 (당은)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수협 회장은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에서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지적에 “(용어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수산업계에서는 아예 ‘오염’을 빼고 ‘처리수’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우리 어업인은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정화돼서 나오는 물을 자꾸 오염수, 오염수 하나가 여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급식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힘, ‘수도권 위기론’ 속 인천·경기 오가며 ‘민심 겨안기’

당 지도부 興경기도의원들 만나

“자신감 가지고 나아가 달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틀 새 인천과 경기를 오가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수도권 겨안기’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30일 이철우 사무총장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 소속 경기도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인사말에서 “경기도야말로 국민 여론과 대한민국 향방을 이끌어가는 핵심축”이라며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하나로 결집해 단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경기북도 설치,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 동능 격차 문제 등 각종 지역 현안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전선 자유한국당 시절 참패했던 2017년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 직후 여당으로 치른 지난해 6·1 지방선거 결과를 비교하며 “4석이 7석으로 상전벽해처럼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본전쯤 됐다고 생각하고 남은 4년 본전 이상을 해야겠다는 치열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격려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당내 안정과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하나로 안정된 정당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자신감이 오만함이 되지 않느냐고 걱정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치열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하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김 대표 발언은 최근 당내 논란을 빚은 ‘수도권 위기론’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됐다.

/연합뉴스

김현숙 “스카우트 대원·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잼버리 파행 사태 첫 입장 발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세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망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세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또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면 언제든 상임위에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정확히 들은 바는 없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국회나 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 | | | |
|---------------------|---------------------|----------------------|------------------------|
| 용산지점 062)526-0222~3 | 유동지점 062)512-1984~5 | 유덕지점 062)373-3235~6 |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
| 치평지점 062)381-8212~3 | 동림지점 062)513-8521~3 | 동운지점 062)528-2640~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 쌍촌지점 062)381-6551~2 | 운암지점 062)527-3295~6 | 배틀지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 외정지점 062)372-0421~3 | 운천지점 062)371-2772~3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